발 간 등 록 번 호
73-6430000-000314-10

제7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작품집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제7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작품집

심사평 | Commentary



푸르름과 생동감이 넘치는 8월, 좋은날에
소중한 출품작들에 대한 설레임을 한껏 품고
제7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길을 안내해주는 상징 조형물(Guide the way)' 의 제목으로 출품된
대학 · 일반부 대상 수상작품은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슬로건인
"시대를 넘어, 세계를 잇다"와 부합하는 컨셉을 바탕으로 디자인 된
작품이었습니다.
무예의 특징을 충분히 표현한 율동적인 곡선을 적용한 형태
그리고 세계인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가 관찰되는 색채계획 등
작품의 매력들이 심사를 진행하는 내내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부 '격파 중 벤치' 는 상징성, 심미성, 합목적성 등에
골고루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의 무술인 태권도의 화려하고 힘찬 '격파' 를 연상시키고
구조적 미려함과 검정 띠를 상징하는 프레임 적용 등은
즐거움의 방점을 찍어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설레임과 즐거움을 품고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신
출품자,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본 공모전을 기획하고 집행해주신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이
공공디자인의 중심이 되고,
선도의 지표가 될 것을 확신하며,
제8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기대해봅니다.

2018년 8월 28일

심사위원장 **조 경 득**

수상작 | Winner List



대학·일반부

대 상	Guide The Way	**이민영 · 오근택**	**08**
금 상	충북 충주의 한글초성 치읓(ㅊ)을 이용한 상징조형물 디자인	**장인수**	**10**
	백의민족	**한동호**	**12**
은 상	ELP	**홍욱 · 민찬홍**	**14**
	Kick Bicycle Rack	**방현희**	**16**
	MARTIAL ARTS FENCE	**성대옥 · 김가람**	**18**
동 상	Message	**김용진**	**20**
	Connect Ring	**변혜정**	**22**
	ROLL & PULL	**조미정**	**24**
	곡선의 아름다움	**이주홍 · 신채영**	**26**
입 선	세계 무예人 시계탑	**양용하 · 이주환**	**28**
	Smoking arena	**신소민 · 이은규**	**29**
	ROAD SIGN WASTEBASKET / (이정표 쓰레기통)	**강태현**	**30**
	아람(雅濫)벤치	**제민규**	**31**
	두름燈(가로등:태껸의 정신과 선의 흐름을 담다)	**김수용**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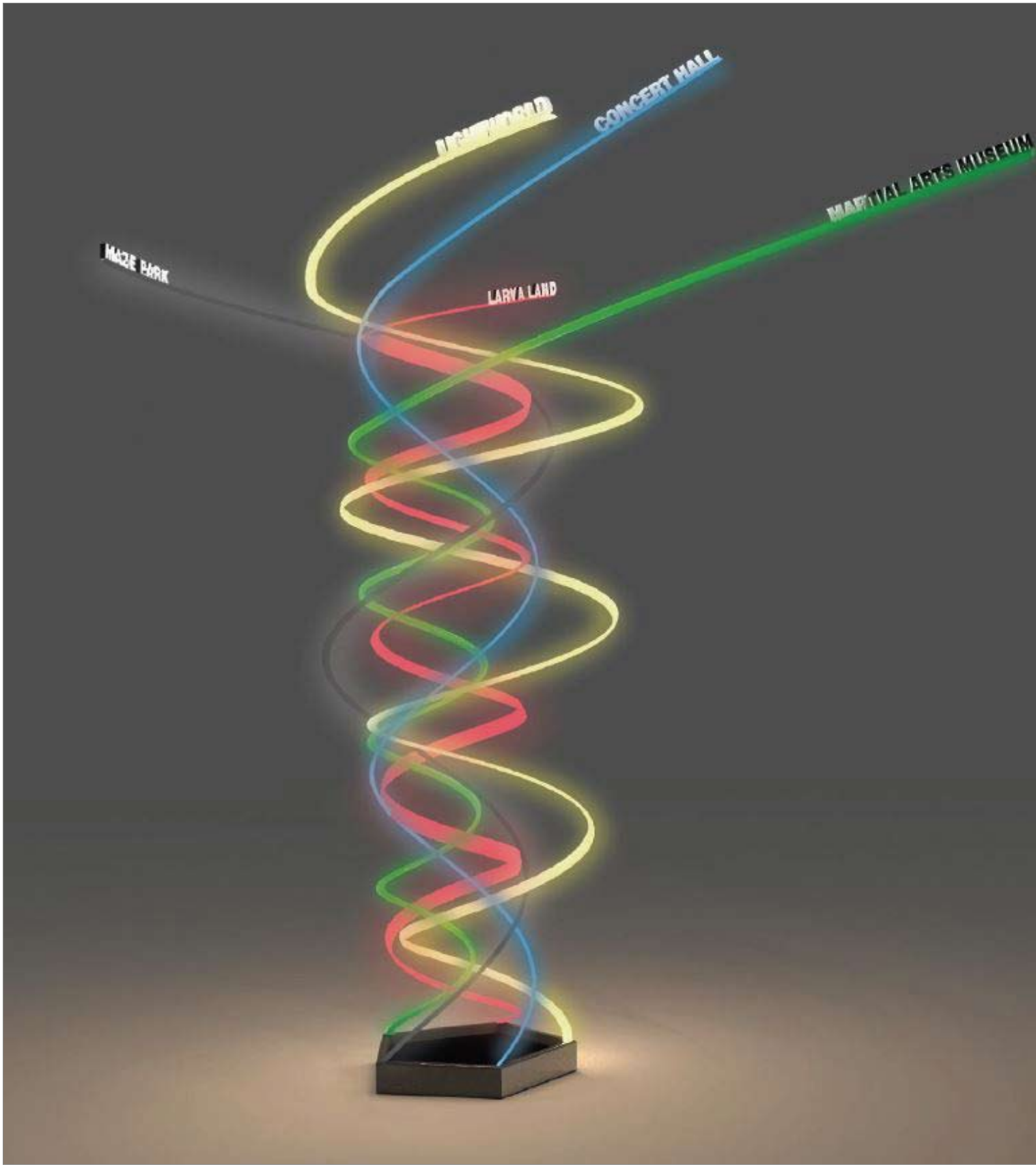


고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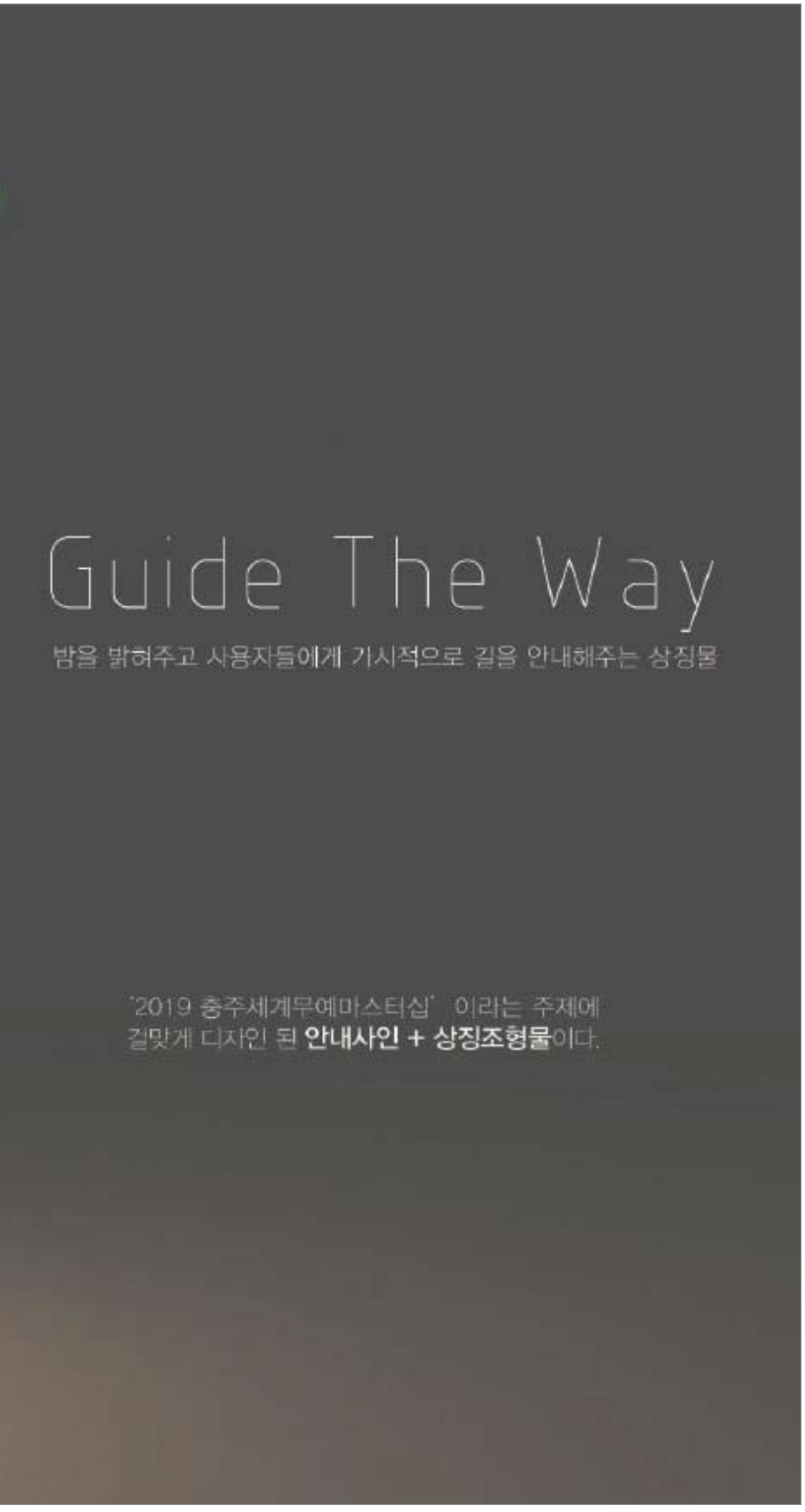
최우수상	격파 중 벤치	**송상훈**	**34**
우 수 상	호구 가로등	**김정근**	**36**
	격파 쓰레기통	**이주영**	**38**
	친근감을 보여주는 무예 버스 안내판	**정인예**	**40**
장 려 상	의자랑(with chair)	**이주희**	**42**
	무예로 세계를 잇다!	**김우림**	**44**
	DANCE OF VICTORY	**이현지**	**46**
	MOVE! ECO TYPE	**김은희**	**48**
	T-chair	**이연지**	**50**
	파워(벤치)	**김서진**	**52**
입 선	빈치(Binch)	**조은비 · 김민교**	**54**
	이색의 쉼터 좌고벤치	**이지수**	**55**
	친절한 글러브씨	**하수민**	**56**
	중심에서 자라나다	**이유민**	**57**

대학·일반부
수상작




CONCERT HALL
MAZE PARK
LARVA LAND

대상



Guide The Way

이민영, 오근택 _ 한국교통대학교 산업디자인전공

DESIGN CONCEPT

작품명의 뜻 그대로 길을 안내해주는 상징조형물이다. 충청북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지이다. 중심에서 뻗어나가는 이미지의 나무가 연상되었고 그것을 모티브로 삼아 디자인했다. 충북에는 풍성한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만큼 자연친화적이고 신선한 느낌의 나무 특징을 잡아 길을 낮과 밤에 관계없이 길을 안내해주며 나무 느낌의 상징조형물을 디자인했다. 그래서 자연 경관을 해치기보다는 자연과 어울리는 디자인이다. 사용자가 사진을 찍으며 조형물을 즐길 수도 있다. 나무라는 형태를 심플하게 나타내면서 나뭇가지들이 각각의 장소를 가시적으로 가리키고 있다. 5가지 색의 조명과 곡선을 사용하는데 이는 화합의 장인 올림픽의 오륜기의 색상을 사용하였다. 세계인을 하나로 모으고 화합의 장을 만든다는 오륜기의 뜻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무예라는 단어에 맞는 율동적인 곡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이즈는 보통 성인의 1.5~2배 정도 되는 사이즈이다. 넓은 공원이다 보니 멀리서도 사용자가 볼 수 있어야한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공간을 가리키고 있다 보니 누구나 알기 쉽다. 충주세계무술공원을 사이트로 잡았고 근처에 라이트월드나 조명으로 된 조형물들도 많아 연결성이 좋다.


1. 조감도 2. 투시도(주경) 3. 투시도(야경)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2019 CHUNGJU
WORLD MARTIAL ARTS
MASTERSHIP

1


• Stainless Steel(Mirror Fin.) •
• Stainless Steel(Bead Fin.)

2


• Downlight

3



금상



치읓(ㅊ) : 한글 초성을 이용한 상징 조형물 디자인

장인수 _ Zanginsooarchitects

DESIGN CONCEPT

충북의 한글 조성 '치읓(ㅊ)'은 5개의 선과 6개의 점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세계를 구성하는 5대양 6대주를 닮았다.

디자인은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의 의미와 '세계 무예의 중심지, 충북'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그 자체로 독창적인 한글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것이다. '치읓(ㅊ)'은 상징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조형물의 싹으로 6개의 점은 5개의 선을 통제하기 위한 제어점(Control Point)이 된다. 각각의 점에서 출발한 5개의 선들은 한 점에서 모여 싹이 튼다. 새끼줄과 같이 서로를 감싸며 상승하는 선들은 최종적으로 꽃이 피듯 펼쳐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무예를 통하여 세계가 하나되는 평화와 화합의 장으로서 충북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스테인리스 스틸(Stainless Steel)로 만든 원형관은 위로가면서 마감을 달리한다. 비드(Bead) 마감에서 미러(Mirror) 마감으로 자연스럽게 변하는 원형관은 주변을 반사하여 도시경관에 녹아드는 동시에 조형물의 성격을 강화한다. 높이에 따라 LED의 밀도가 다른 투명 필름을 피복한 원형관은 조형물의 실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위로 가면서 서서히 벤치에서 조명으로 그 기능이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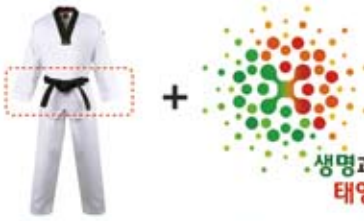
한글 초성에서 싹튼 조형물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과 충청북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공공시설물로서의 다양한 역할-벤치, 조명 그리고 상징조형물은 활용성, 지역성 그리고 예술성을 결합한다.

백의민족 |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대표 종목 태권도 도복을 모티브한 태양광 벤치 디자인 계획안

● 디자인 방향성

세계인이 함께하는 무예 스포츠로 세계가 하나가 되는 '평화' 와 '화합' 의 축제인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공공시설물은 명확한 아이덴티티을 도출하고, 이미지를 전달하여야 한다.
마스터십 대표 종목인 태권도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된 '도복' 과 '띠' 를 상징화하고 태권도의 역사와 전통 백의민족의 의미에서 시작된 도복과 수련인의 땀과 노력을 상징하는 띠를 모티브하여, 마스터십의 상징 디자인을 계획하였다.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5대 기본원칙을 기준을 지향하고, 절제된 디자인과 쉽게 의미 전달이 가능한 디자인,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여 지속가 능한 디자인,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계획하였다.



태권도 도복과 띠의 의미 / 충북의 아이덴티

● 디자인 규격

설치장소 : 충주실내체육관 광장 및 종목별 경기가 시행되는 체육관 및 공원에 설치
규격 : W: 2,000mm X D: 600mm X H: 좌석 420mm, 전체 1,200mm (*주요 마감재 : 금속프레임 구조틀 / 하이막스 / 도장마감, – 디자인 구성 : 상세 마감 기재)



평 면 도



정 면 도



배 면 도

● 디자인 콘셉트

"충주세계무예 마스터십 상징성과 충청북도의 상징성을 융합"

태권도의 백색 도복 위 검은 띠를 매고 있는 형태를 담아내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청북도의 이미지를 상징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벤치디자인을 계획하였다.
태권도의 역사와 백의민족의 상징성, 수련자 노력을 상징하는 띠의 상징성, 충북 깨끗한 지역성과 태양광 산업의 우수성을 융합한 디자인



융합



금상



백의민족

한동호 _ 난디자인

DESIGN CONCEPT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상징성과 충청북도의 상징성을 융합'

태권도의 백색 도복 위 검은 띠를 매고 있는 형태를 담아내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청북도의 이미지를 상징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벤치디자인을 계획하였다.

태권도의 역사와 백의민족의 상징성, 수련자 노력을 상징하는 띠의 상징성, 충북 깨끗한 지역성과 태양광 산업의 우수성을 융합한 디자인

디자인 방향성

세계인이 함께하는 무예 스포츠로 세계가 하나 되는 '평화'와 '화합'의 축제인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공공시설물은 명확한 아이덴티티를 도출하고, 이미지를 전달하여야 한다.

마스터십 대표 종목인 태권도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도복'과 '띠'를 상징화하고 태권도의 역사와 전통 백의민족의 의미에서 시작된 도복과 수련인의 땀과 노력을 상징하는 띠를 모티브하여, 마스터십의 상징 디자인을 계획하였다.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5대 기본원칙의 기준을 지향하고, 절제된 디자인과 쉽게 의미 전달이 가능한 디자인,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디자인,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계획하였다.

ELP | ECO LAMP POST FOR CHUNGJU WORLD MATIAL ARTS MASTERSHIP

충주세계격투마스터쉽을 위한 가로등 디자인으로 행사의 다양한 종목의 상징을 LAYERED LED ILLUMINATION STRUCTURE를 통해서 다양한 COLOR로 표현하여 각각 독창적인 무예와 격투가 서로 어울리고 소통하며 교류하는 의미를 투명한 PANEL과 LED가 겹쳐서 만들어 내는 하모니로 시각적으로 구현하였다. 자연과 어울리고 친환경 LAMP POST의 제작을 위하여 SOLAR ENERGY를 활용하여 동작시키고 자연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되며 COLUMN의 형태를 행사의 SYMBOL과 LOGO로 입체를 구성하여 각각의 형태와 소재에 충주세계격투마스터쉽의 깊은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



COLUMN & BANNER

충주세계격투마스터쉽의 SYMBOL과 LOGO의 형태를 응용하여 표현한 COLUMN과 BANNER 디자인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욱 돋보이도록 하였다.

TRADITIONAL PATTERN FRAME

예로부터 집안에 손님을 맞이하는 사랑방의 문 등에 사용되는 우리의 전통 격자형태의 프레임에 세계격투 마스터에 참가하는 손님들을 환영한다는 함의를 담았고 서로가 무예와 격투를 통해서 소통하고 교류한다는 개방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하였다.

NATURAL MATERIALS

친환경 가로등 제작을 위하여 하단부는 WOOD (목단)을 사용하였고 COLUMN은 ALUMINIUM으로 제작하며 상단부에는 SOLAR PANEL을 설치하여 자연과 어울리는 소재를 채택 하였으며 격자 FRAME 내부에 흙을 담아 식물을 심을 수 있도록 하였다.



SOLAR POWER

다양한 무술을 상징하는 실루엣의 형태에 각각의 색상을 적용한 LED ILLUMINATION의 구현을 위해 요구되는 전력은 상단부에 위치한 5면의 SOLAR PANEL을 통해 충전된 ENERGY를 사용하여 친환경 가로등의 목적을 완성한다.

LAYERED ILLUMINATION STRUCTURE

다양한 무술을 상징하는 실루엣의 형태에 각각의 색상을 적용한 LED ILLUMINATION으로 구현한 구조로서 조명부에 TRANSPARENT PANEL에 실루엣을 LASER MAKING하고 단면에 서로 다른 색상의 LED 불빛을 비추어 형태를 표현한다. 각각의 실루엣 형태가 표현된 PANEL들을 일정 간격을 두고 배치하여 서로 겹쳐보이는 LAYERED VISUAL EFFECT를 구현하고 다양한 색상의 LED ILLUMINATION이 교차되며 아름다운 빛의 어울림을 만든다.

DIMENSION

W X L X H = 800 X 150 X 3,800 (mm)





은상

ELP / ECO LAMP POST FOR CHUNGJU WORLD MATIAL ARTS MASTERSHIP

홍 욱 _ WOOKIEHONG
민찬홍 _ 홍익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

DESIGN CONCEPT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을 위한 가로등 디자인으로 행사의 다양한 종목의 상징을 LAYERED LED ILLUMINATION STRUCTURE를 통해서 다양한 COLOR로 표현하여 각각 독창적인 무예와 격투가로 어울리고 소통하며 교류하는 의미를 투명한 PANEL과 LED가 겹쳐서 만들어 내는 하모니로 시각적으로 구현하였다. 자연과 어울리고 친환경 LAMP POST의 제작을 위하여 SOLAR ENERGY를 활용하여 동작시키고 자연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되며 COLUMN의 형태를 행사의 SYMBOL과 LOGO로 입체를 구성하여 각각의 형태와 소재에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의 깊은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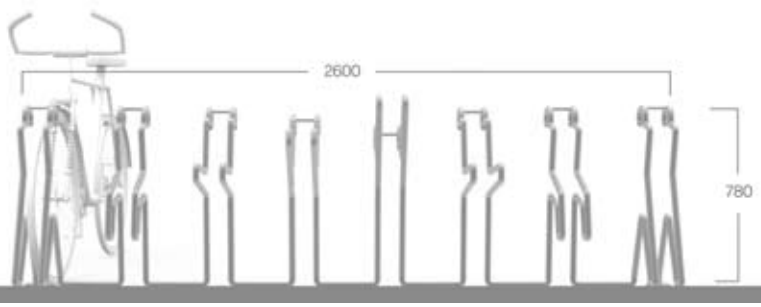
Kick Bicycle Rack

무예의 연속동작을 형상화 한 자전거 거치대

무예는 예술과 표현, 미(美)와 관련지어 해석하여 미적 예술적 가치를 지향함. 따라서 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듯 한 아름다운 무예의 연속동작 라인을 가지고 이미지를 형상화 해 자전거 거치대를 디자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이며 아름다운 무예인 태권도의 동작의 라인을 가져와서 디자인 하였으며 라인 디자인을 가지고 상 이미지를 형성하며, 보는 사람을 통해 아름답고, 역동적인 무예의 질 수 있게 디자인









은상





Kick Bicycle Rack

무예의 연속동작을 형상화 한 자전거 거치대

방현희 _ 청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DESIGN CONCEPT

무예는 예술과 표현, 미(美)와 관련지어 해석하여 미적 예술적 가치를 지향한다. 따라서 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듯한 아름다운 무예의 연속동작 라인을 가지고 이미지를 형상화해 자전거 거치대를 디자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이며 아름다운 무예인 태권도의 발차기 연속동작의 라인을 가져와서 디자인 하였으며, 라인 디자인을 가지고 생생한 무예의 이미지를 형성하며 보는 사람을 통해 아름답고 역동적인 무예의 이미지가 느껴질 수 있게 디자인하였다.

따라서 자전거 거치대의 형상이 연속적인 무예의 동작이 이어지는 형상으로 디자인 하였으며, 동작들 사이사이에 자전거를 거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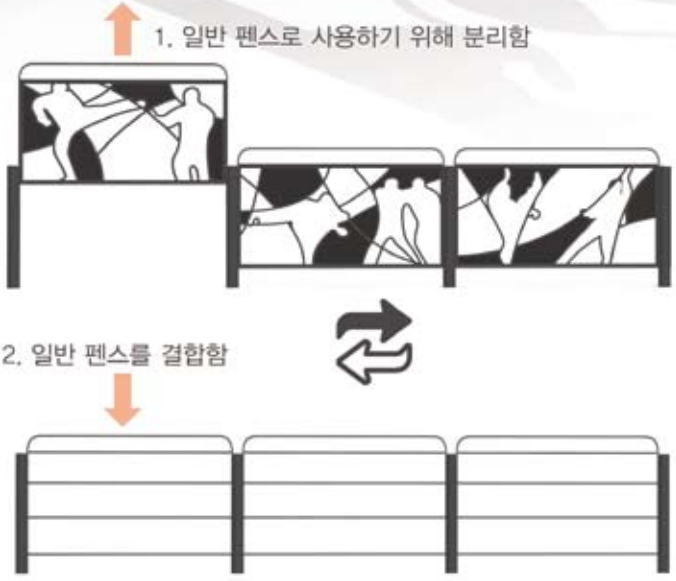
가로 2600mm 세로 570mm 높이 780mm의 사이즈의 자전거 거치대로 원형의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재료로 사용하였다.

MARTIAL ARTS FENCE

세계무예마스터십 22개 참가종목을 알릴 수 있는 디자인 펜스

펜스에 무예마스터십 22개의 정식 종목들의 상징적인 자세를 형상화하여 도시의 미관과 세계무예마스터쉽을 홍보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음. 또한 쉬운 펜스 관리를 위해 지지대와 펜스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이며, 무예마스터쉽 행사가 끝난 후 상징적인 자세의 형상화된 펜스 부분만 분리한 후 일반적인 펜스로 교체하여 장기적 사용 및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내구성 및 유지성을 위해 재질은 스틸을 사용함





Site



택견 전수와 세계무예마스터쉽을 개최하는 **충주시**로 정했으며 그 중에서 **무술 박물관,공원**을 대상으로함





은상

MARTIAL ARTS FANCE

세계무예마스터십 펜스

성대옥, 김가람 _ 청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DESIGN CONCEPT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은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무술을 겨루는 대회이며, 무술의 성지인 충주에서 개최함.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공공디자인 또한 무예마스터십을 상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 필요함.

컨셉으로는 노출되기 쉬운 공공시설물 중에 펜스를 선택하였고 차량 및 보행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하여 펜스에 22개의 정식 종목들의 상징적인 자세를 형상화하여 도시의 미관과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을 홍보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음. 또한 쉬운 펜스 관리를 위해 지지대와 펜스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이며,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행사가 끝난 후 상징적인 자세의 형상화된 펜스 부분만 분리한 후 일반적인 펜스로 교체하여 장기적 사용 및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함. 특히 다양한 종목들을 사람들에게 노출함으로 인해 종목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켜줄 수 있도록 함.

Message

Needs Analysis

충북을 찾는 국내 · 외 관광객을 위한 공공시설물과 전자기기 충전시설 필요성

지난해 충북 도내 149곳의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은 모두 2,378 만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작년(1,942 만명)보다 22.4%가 증가하였다. 충북은 다양한 관광지와 축제, 행사로 국내 · 외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으며, 세계무예를 선보이는 2019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 행사를 중심으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특화된 공공시설물이 필요하다.
최근 관광객의 경우 많은 전자기기를 소유한다.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스마트워치, 노트북, 카메라, 보조 배터리 등, 관광지 인근 커피숍이나 식당에는 관광객이 전자기기 충전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객 쉼터(그늘막과 의자)와 전자기기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디자인이 필요하다.

Design Direction

마스터십의 아젠다와 아이덴티티가 잘 표현된 5가지 키워드와 충북의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의 아이덴티티를 전개하여 충북을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쉼터(공공디자인)와 태양광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전자기기 충전시설을 계획하였다.
마스터십의 5가지 키워드와 그 중심의 충북을 상징하는 키워드를 연결하고 일원화하여 새로운 가치와 특화된 공공디자인을 계획하였다.

마스터십 아젠다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세계무예마스터십 운동의 일환으로 For & Against(F&A)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다



디자인 발상





Structure diagram

그늘막과 의자는 세트로
그늘막은 바닥 기초석을
공공 와이파이 설치 및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직각 모서리가 없는 안전

- 태양광
  솔라패널
- 상부 그
  금속 구조
- LED 라이
  태양광
- 볼
  금조 구조
- 테이블
  금속 구조
  (USB 충
- 의자
  금속 구조
  지정 우드
- 바닥 조명
  LED 라이

공공시설 야간 활용과 야
상부 부분 태양광 패널을
규격 : 그늘막 ø2,400m



동상



Message

김용진 _ 난디자인

DESIGN CONCEPT

마스터십의 아젠다와 아이덴티티가 잘 표현된 5가지 키워드와 충북의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아이덴티티를 전개하여 충북을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쉼터(공공디자인)와 태양광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전자기기 충전시설을 계획하였다.

마스터십의 5가지 키워드와 그 중심의 충북을 상징하는 키워드를 연결하고 일원화하여 새로운 가치와 특화된 공공디자인을 계획하였다.


Connect Ring
하나가 되어 거대한 공간이 되고 소통의 연결고리가 된다
행인들의 흥미를 끌고 그들이 앉을 약간의 동기만 부여한다면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모이게되고 새로운 광장을 형성하여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장소가 되어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간략하고 명확한 형태로 충주무예마스터십 아이콘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자한다
Keypoint
홍보
공간
연결
소통
상징
휴식
Design Concept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의 로고를 이용하여
소통의 연결고리로 형상화 하여 벤치를 디자인한다
Color
세계무예마스터쉽의 6가지 대표색상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하고 접하게 한다
Module
각각의 색상 의자들을 다양한 형태들로 만들 수 있게 끔 하여 다양한 휴식 형태와 소통을 돕는다

동상



Connect Ring

변혜정 _ 울산대학교 제품 · 환경디자인과

DESIGN CONCEPT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에 대한 홍보는 버스승강장, 배너 등 많은 매체들로 홍보를 할 수 있겠지만 기억에 잘 남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로고의 사람모양을 소통의 연결고리로 형태를 잡아 벤치를 만들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인들에게 쉽게 흥미를 끌고 그들이 편안하게 앉을 벤치만 부여한다면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모이게 되고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표색채 6가지 색의 벤치들이 모여 새로운 광장을 형성하여 한 번 더 인식하게 되고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장소가 되어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간략하고 명확한 형태로 2019 충주무예마스터십 아이콘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한다.

ROLL & P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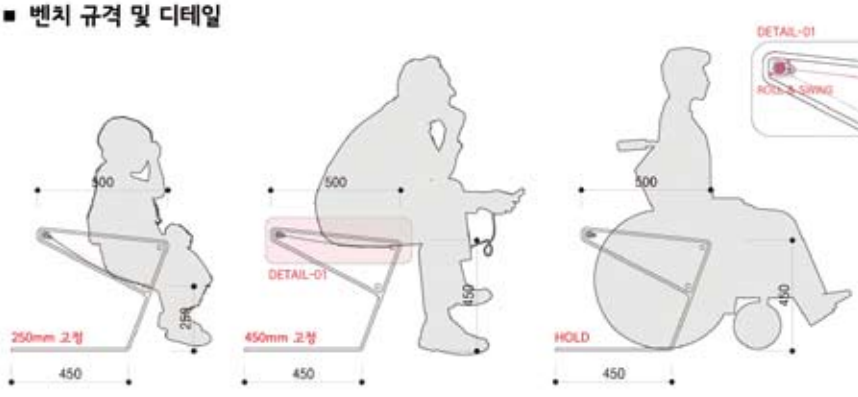
2019년 충주세계마스터십에는 다양한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각 지역과 여러나라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및 신체적약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러나 행사지 주변의 보통의 벤치는 한가지 형태로 고정되어 이용자가 그 의자에 맞추어 앉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소수의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한 경우도 생
ROLL & PULL 벤치는 이용자의 다양함에 따라 각자가 앉는 높이를 선택할 수 있고, 휠체어나 유모차 등 별도 좌석을 보유한 소수 이용객들 까지 수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방식의 벤치를 통해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볼 수도 있고, 때로는 같은 눈높이로 서로의 시야를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모듈시스템 &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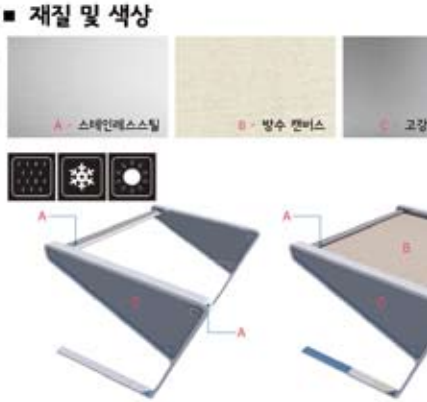


생명과 충북 태양의 땅 X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2019 CHUNGJU WORLD MARTIAL ARTS MASTERSHIPS

■ 벤치 규격 및 디테일



■ 재질 및 색상



동상



ROLL & PULL

조미정 _ t.a.a.t.

DESIGN CONCEPT

형태적 디자인과 색상은 한국전통 건축의 지붕과 처마선, 그리고 무예의 아름다운 선을 모티브로 시작하였다.

이 두 가지 요소에서 공통되는 자연스러운 사선과 다이내믹한 라인을 모던한 형식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불필요한 치장은 지양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통해 충청북도의 다양한 곳에서 주변과 어울리도록 하였다.

곡선의 아름다움

모두의 텃밭



_설치 장소

공원 등 지역 주민들

_디자인 컨셉

무술의 몸짓에서 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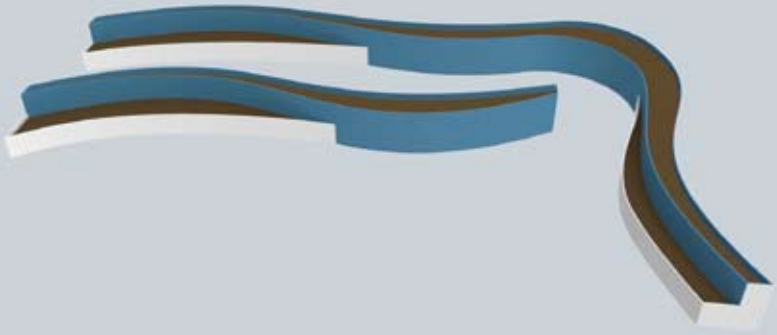
_작품 소개

곡선의 미 텃밭은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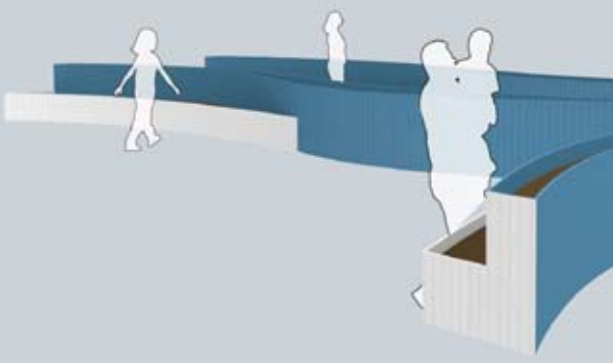
수 있도록 하였다. 지

이루어지게 된다.

_Perspective No.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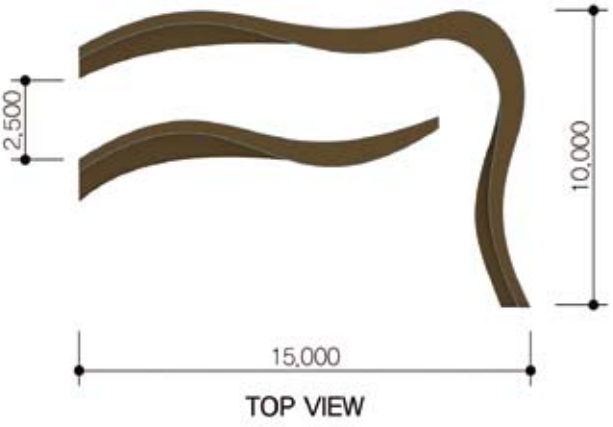
_Perspective No.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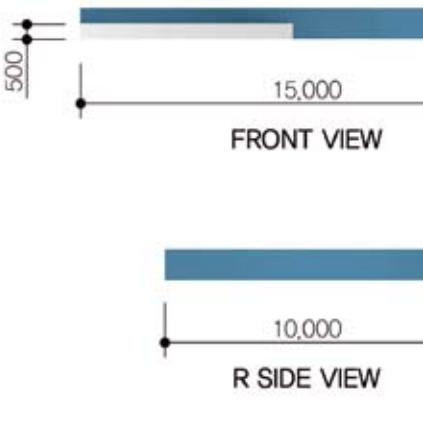


_Crops



_Draw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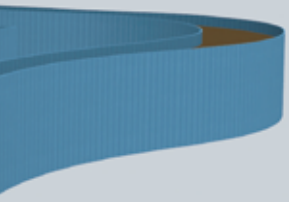
동상



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소통의 매개체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설치

오는 자연스러운 곡선미를 이용하여 텃밭을 디자인하였다.

이를 500mm, 1000mm 두 단계로 나누어 누구나 사용할
역 주민들은 텃밭을 공동 관리하며 자연스럽게 이웃간의 소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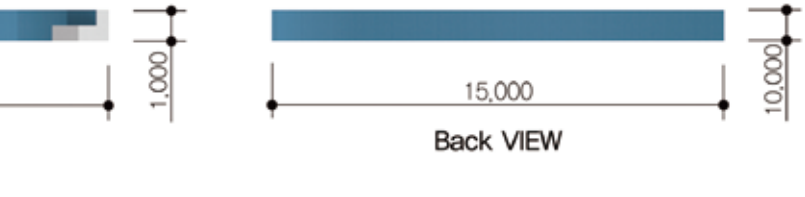
면적 약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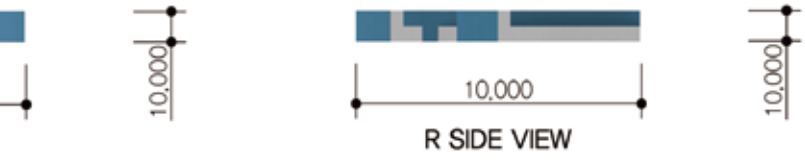
크기 15,000W x 1,000H x 10,000D (mm)

재질 Container

색채 R : 21 G : 77 B : 115

R : 223 G : 223 B : 23





곡선의 아름다움

이주홍, 신채영 _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산업디자인학과

DESIGN CONCEPT

무술의 몸짓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곡선미를 이용해 콘셉트를 설정하여 텃밭을 디자인했다.

작품의 사이즈는 top view 15,000 x 10,000, front view 15,000 x 1,000, side view 10,000 x 1,000 이다.

곡선의 미 텃밭은 높이를 500mm, 1000mm 두 단계로 나누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술 공원 근처 주민들은 텃밭을 공동 관리하며 자연스럽게 이웃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입선

세계 무예人 시계탑

양용하, 이주환 _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업디자인전공

DESIGN CONCEPT

작품 컨셉은 세계 무예인들이 무예 종류별로 시계탑에 나타나는 '세계 무예人 시계탑'과 '시계탑 속에(IN) 세계무예'라는 2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종목에 포함된 22개 종목(태권도, 우슈, 주짓수, 삼보, 무에타이, 우슈, 기사, 합기도, 유도 등)에서 나타나는 손과 발의 동작과 특징을 시계의 시침과 분침으로 나타내었다.



입선

Smoking arena

신소민, 이은규 _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산업디자인학과

DESIGN CONCEPT

Smoking arena는 일반 시민들도 무예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된 흡연부스이다.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축제가 아닌 세계인의 축제이기 때문에 화합을 느낄 수 있게 표현했다. 흡연을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축제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 했다. 흡연부스는 따로 입구가 있는 것이 아닌 링을 넘어 출입하는 방식이며 자신이 복싱경기장의 선수가 되는 느낌을 들게 한다. 부스 안의 재떨이는 샌드백을 모티브로 디자인 되었으며 시각적 재미뿐만 아니라 두꺼운 스프링이 달려있어 가볍게 치는 등의 체험도 가능하다. 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일반 흡연구역에서도 활용 가능한 흡연부스 디자인이다.



입선

ROAD SIGN WASTEBASKET
이정표 쓰레기통

강태현 _ 계명대학교 산업디자인과

DESIGN CONCEPT

이 공공 제품은 이정표 쓰레기통으로서 세계 유일의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이 열리는 충북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시설물, 아이디어를 생각하였고 그 결과 나온 컨셉은 쓰레기통과 이정표를 합치고, 마스터십 로고를 이정표 부분에 활용하여 비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 동시에 인식될 수 있게 활용하고, 충청북도의 산을 형상화하여 하단부 테두리에 활용하였습니다.



입선

아람 [雅濫] 벤치

제민규 _ 백석대학교 산업디자인과

DESIGN CONCEPT

아람 [雅濫] = '맑게 퍼지다'

이 벤치를 통해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의 개최 의미가 벤치에 앉는 사람들에게 맑게 퍼지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으며, 국토의 중심, 철도의 중심에 있는 지형적 특색에 영감을 받은 디자인.

'2019 충주무예마스터십'의 개최 의미 중 하나인, '화합의 장'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 각기 다른 인종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형태의 디자인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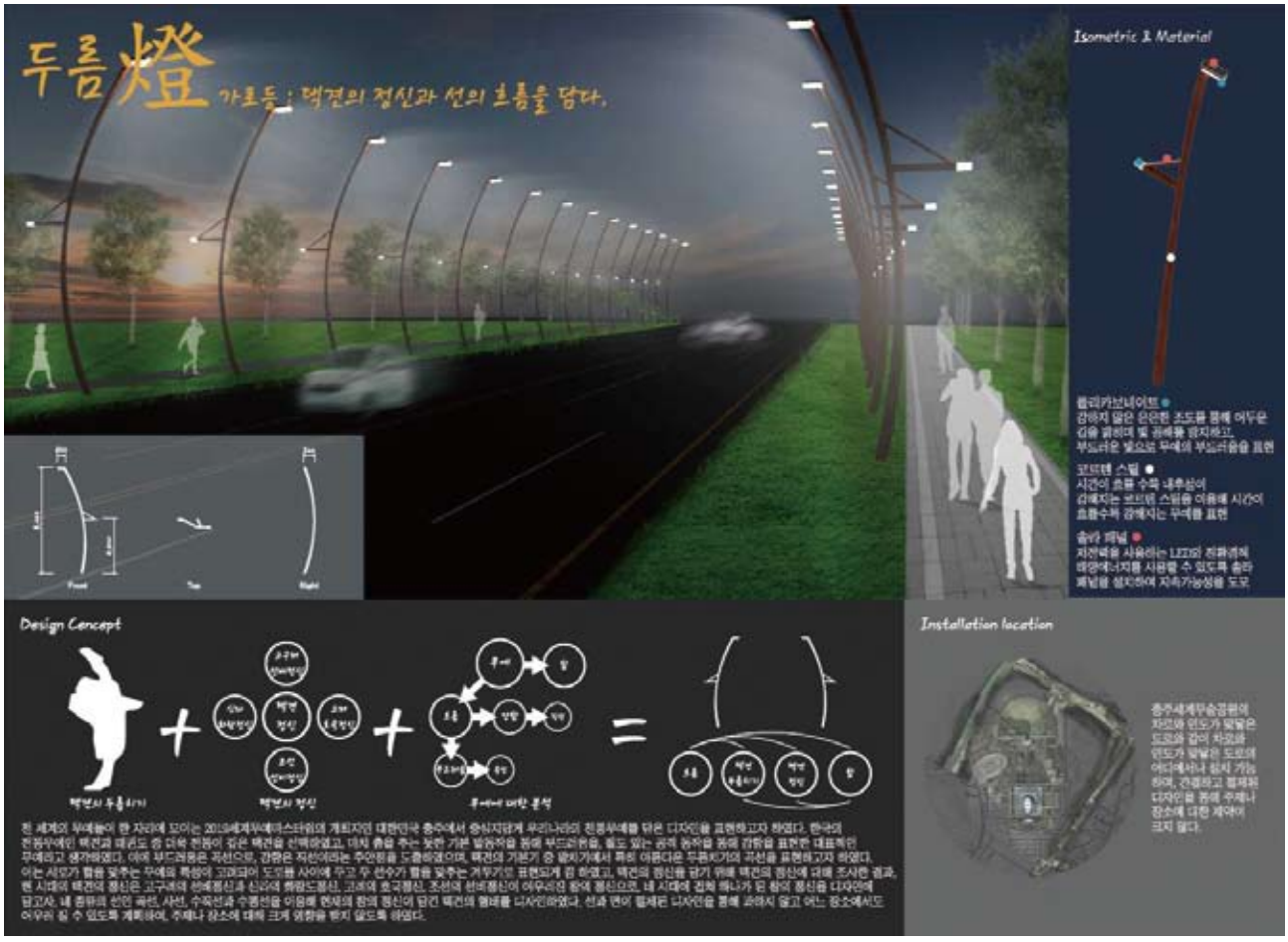
입선

두름燈
(가로등 : 택견의 정신과 선의 흐름을 담다.)

김수용 _ 한국교통대학교 건축학과

DESIGN CONCEPT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의 개최지인 대한민국 충주에서 무예의 중심지다운 우리나라의 전통무예를 담은 디자인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전통무예인 택견의 춤을 추는 듯한 기본 발동작을 통해 부드러움을, 절도 있는 공격 동작을 통해 강함을 표현한 대표적인 무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부드러움은 곡선으로, 강함은 직선이라는 주안점을 도출하였으며, 택견의 기본기 중 발차기에서 특히 아름다운 두름치기의 곡선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서로가 합을 맞추는 무예의 특성이 고려되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 선수가 합을 맞추는 겨루기로 표현되게끔 하였고, 택견의 정신은 고구려의 선배정신과 신라의 화랑도정신, 고려의 호국정신, 조선의 선비정신이 어우러진 참의 정신으로, 네 시대에 걸쳐 하나가 된 참의 정신을 디자인에 담고자 네 종류의 선인 곡선, 사선, 수직선과 수평선을 이용해 현재의 참의 정신이 담긴 택견의 형태를 디자인 하였습니다. 선과 면이 절제된 디자인을 통해 과하지 않고 어느 장소에서도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제나 장소에 대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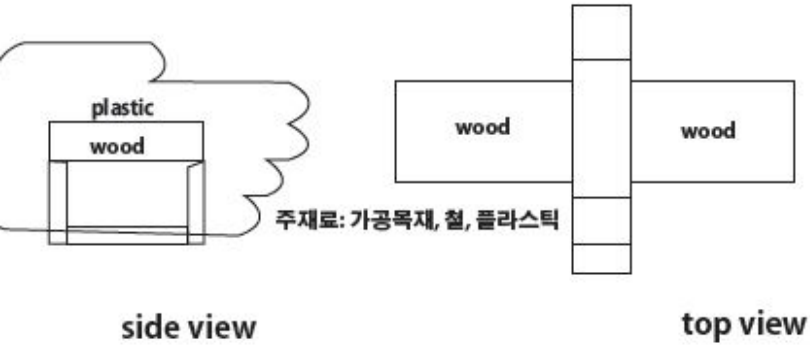


고등부
수상작


격파中벤치
design ver. 1

최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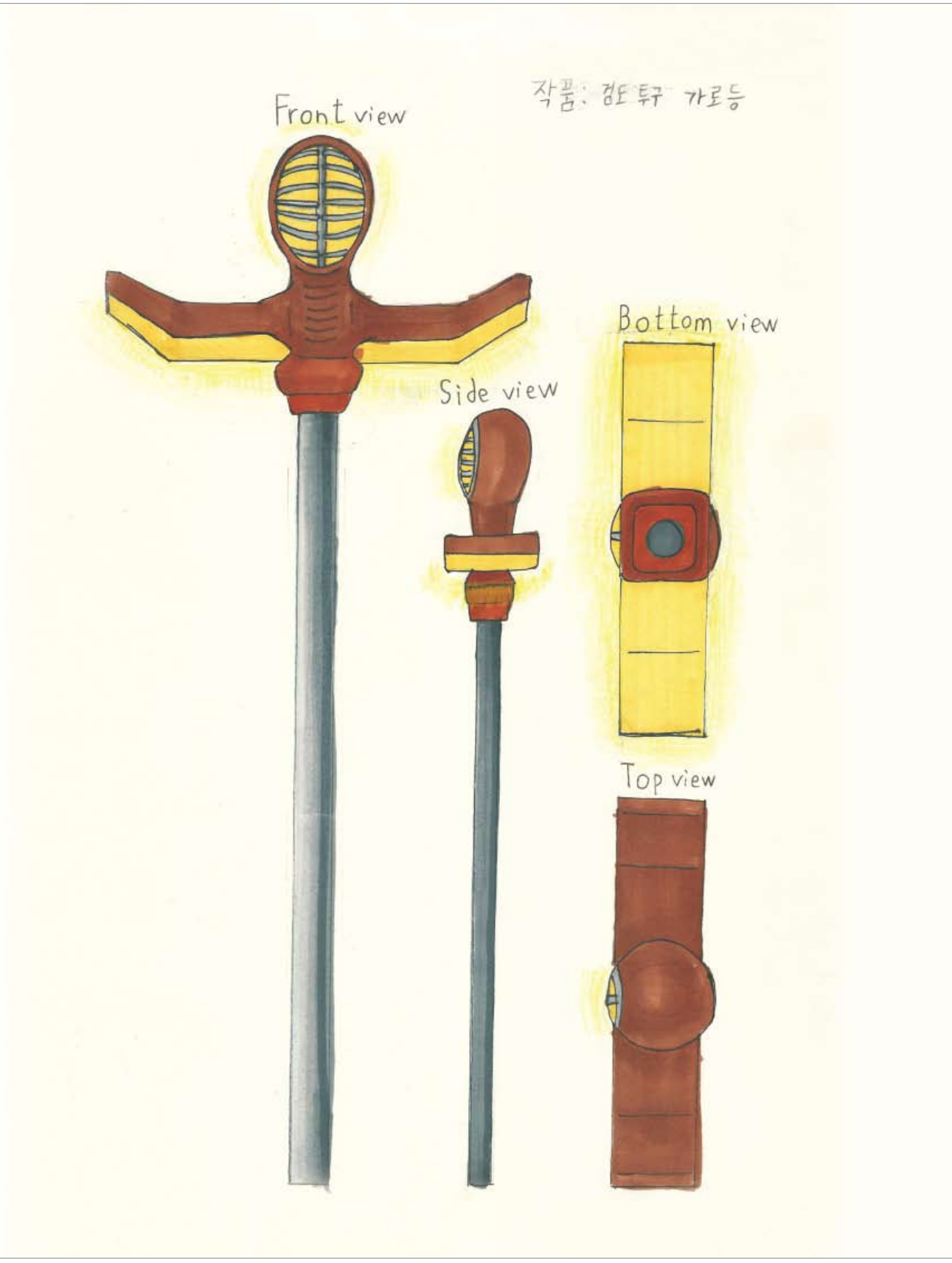
컨셉: 이 벤치 디자인의 주제는 '손날격파' 이다.
충주 세계 무예마스터십이란 이름에 걸맞게
무술 단련의 한 종류인 격파에 중심을 둬
누구나 알아볼 수 있고 시각적인 즐거움과
기능적인 면, 상징적인 면을 고려하여
격파 하고 있는 중 인 모습의 벤치로 디자인하였다.

격파 중 벤치

송상훈 _ 충북예술고등학교

DESIGN CONCEPT

이 벤치 디자인의 주제는 '손날격파'입니다.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이란 이름에 걸맞게 무술 단련의 한 종류인 격파에 중심을 둬 누구나 알아볼 수 있고 시각적인 즐거움과 기능적인 면, 상징적인 면을 고려하여 격파 중인 모습의 벤치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작품: 검도 투구 가로등
Front view
Side view
Bottom view
Top view

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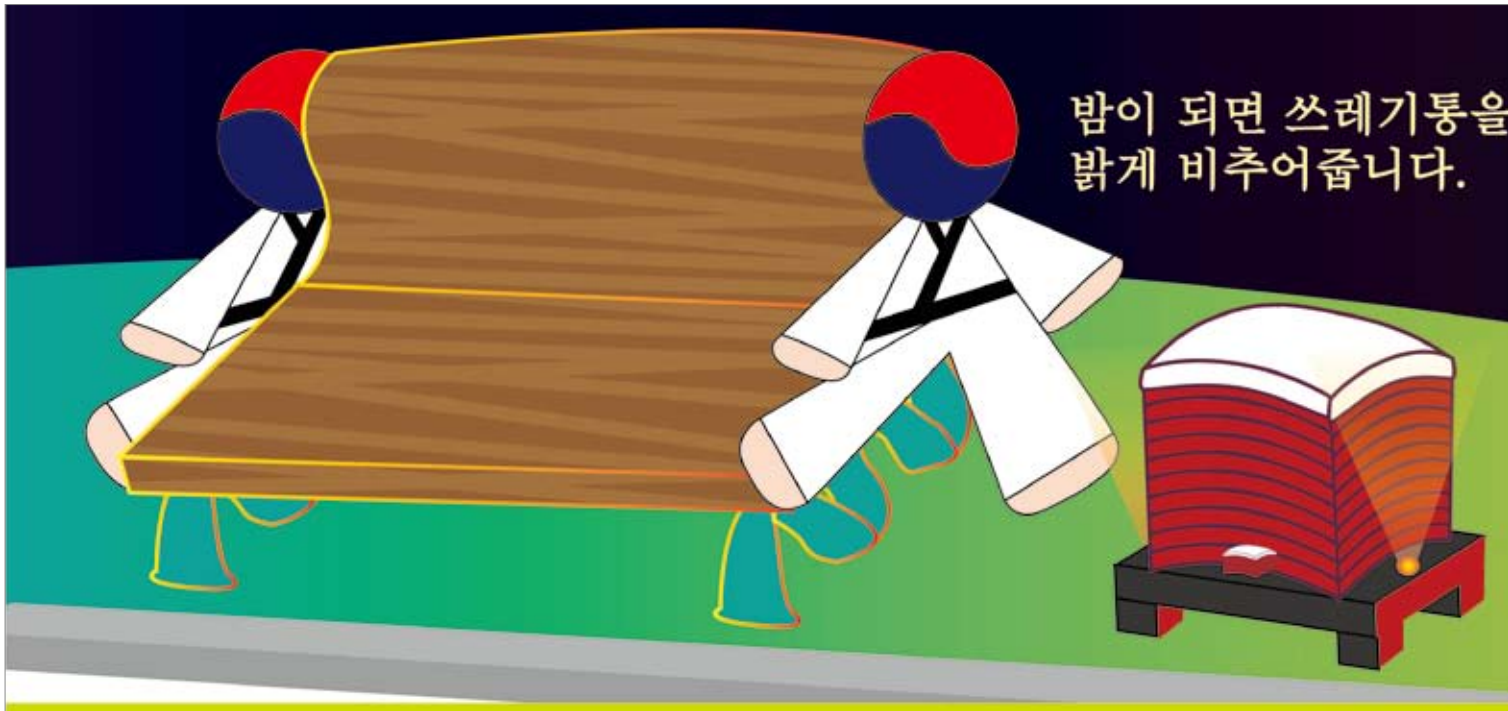


호구 가로등

김정근 _ 충북예술고등학교 디자인과

DESIGN CONCEPT

주제가 무예와 관련된 것이라서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다가 문득 이전에 검도를 배웠던 적이 있어서 검도 보호구를 사용하여 작품을 디자인 해보기로 하였다. 호구(검도투구)를 가로등으로 만든 이유는 검도가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지 잘 아는 내가 세계무예 중 하나인 검도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존경의 의미로 빛이 나게 만들었다.


밤이 되면 쓰레기통을
밝게 비추어줍니다.


이 격파쓰레기통은 앞에 조그만한
발판을 밟으면 위에 수건 부분이
열리면서 위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색깔별로 일반쓰레기, 병류, 종이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구분이 가능
합니다.
위
앞
뒤

우수상



격파 쓰레기통

이주영 _ 한림디자인고등학교

DESIGN CONCEPT

이 격파 쓰레기통을 만든 이유는 어른이나 아이 누구나 상관없이 재밌고 즐겁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격파를 할 수 있는 기왓장을 쓰레기통으로 만든 이유는 무예의 중심인 충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무술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 나던 것이 발차기나 격파 등 여러 가지 등이 생각이 나는데 무술축제나 무술과 관련된 축제를 가면 있는 격파를 체험해 보고,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격파 쓰레기통의 용도는 말 그대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입니다. 실제 격파를 할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것처럼 이 격파쓰레기통의 위에서 아래로 쓰레기를 버리시면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격파 쓰레기통의 색깔이 다양하단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색깔의 의미는 색깔별로 일반쓰레기, 병, 플라스틱, 유리 등으로 나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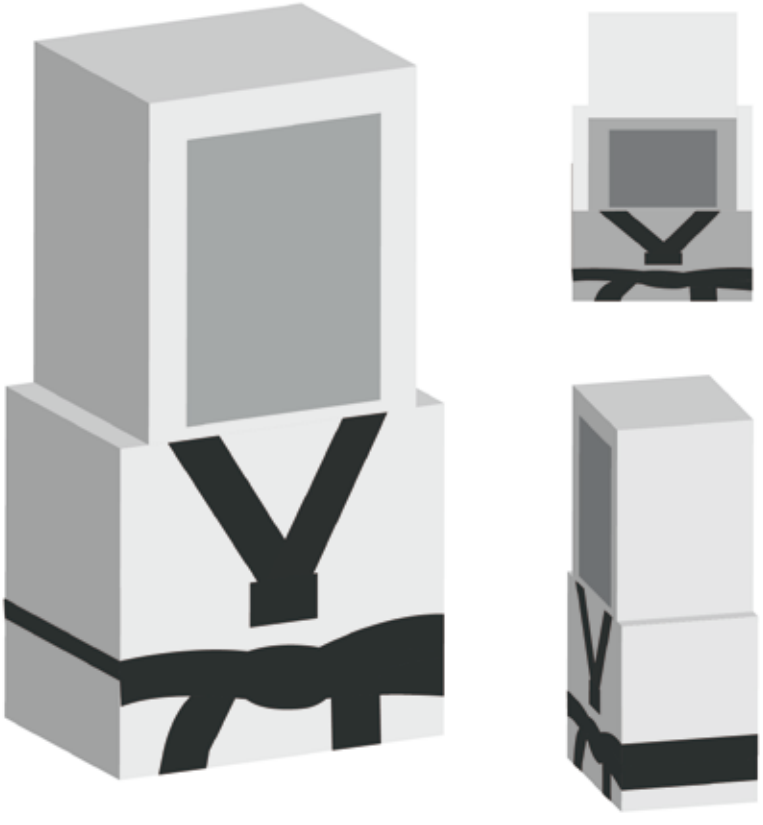
추가로 옆에 보이는 의자는 발차기하는 모습을 양옆에 팔걸이로 활용하여 무술의 중심 도시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친금함을 보여주는

무예 버스 안내판

▲작품의 의도

무예는 오랜기간 우리의 역사와 함께 했다. 그럼에도 일반 대중들은 친근함 보단 어색함을 느끼고 있다. 지금 아이디어는 그러한 단점
하고 싶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버스와 접목을 시켜보았다. 특히, 버스 정류장에서 가장 많이 주목을 받는 안내판에 '무예'라는 ㄷ
무예 마스터십의 홍보를 빠르게 인식 시킬 수 있다.



▲ 태권도 버전

◀ 컨셉

'무예'의 인식개선을 높이기 위해 충북에서 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버스 안내판을 캐릭터
시킴으로서 친근함을 어필하고 '무예마스터십
홍보를 도와준다.

◀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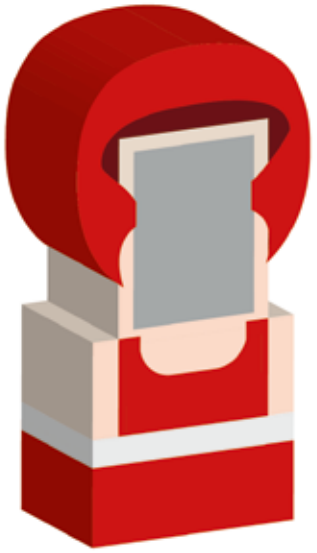
머리와 몸통은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
페인트 혹은 스티커를 활용하여, 안내판에 옷
입힌다.

우수상



을 보완하고자 친근함을 느끼게 해주어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존재로 인식되게
디자인을 접목 시켜 일종의 캐릭터화로 활용하여 주목을 더욱 부각 시키고 곧 있을

장
화
십'



◀ 킥복싱 버전

을



우슈 버전 ▶

친근감을 보여주는 무예 버스 안내판

정인예 _ 한림디자인고등학교

DESIGN CONCEPT

무예가 한국에 들어온 지 오래됐지만 사람들은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안내판에 접목시켜 무예의 종류도 다양하다는 것과 무예의 인식을 높이고자 버스 안내판을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머리와 몸통은 플라스틱으로 제작하였으며, 스티커나 페인트를 활용해 안내판에 옷을 입혀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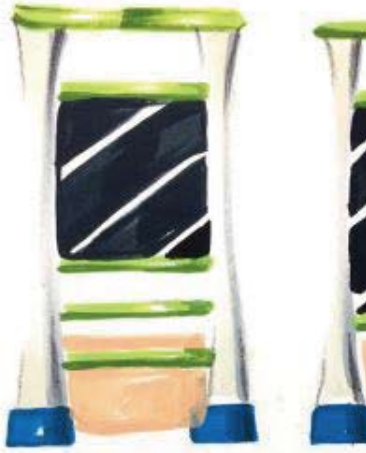
사이즈는 약 가로 40cm, 세로 50cm로 생각됩니다.

안내판의 용도는 무예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만들었고 무예의 여러 가지 종류를 안내판에 입혀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히는 것을 통해 원래의 버스 안내판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이런 디자인도 있네' 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의자랑 with chair

"쉬는 공간을 제안하면서도 관람객에게 무예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





설치 장소: 경

사람들이 직접 무예를
가장 정보를 잘 받아드
주변에 배치함으로써



작품 소재 :  + 정보

무예와 기합을 생각하였을 때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주먹을 쥔 포즈와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과 무예에 대한 정보를 더하여 사람들에게 무예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이 벤치를 통해 무예가 사람들에게 더 친숙하게다가갈 것이라고 기대한다.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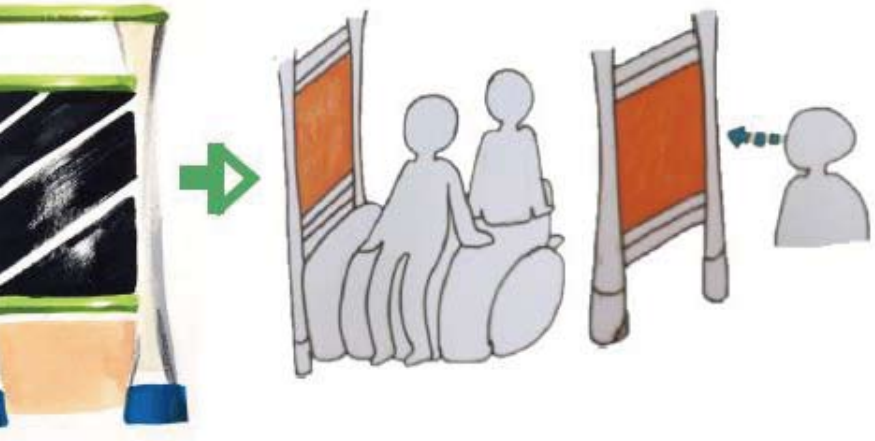
의자랑(with chair)

이주희 _ 충북예술고등학교

DESIGN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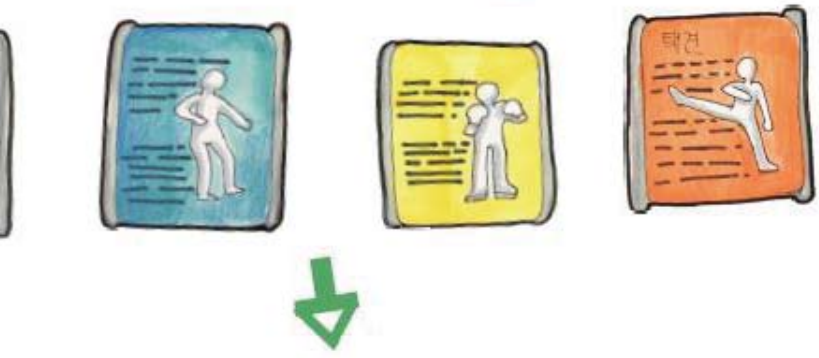
무예와 기합을 생각하였을 때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주먹을 쥔 포즈와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과 무예에 대한 정보를 더하여 남녀 노소가 가장 익숙하고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는 벤치를 디자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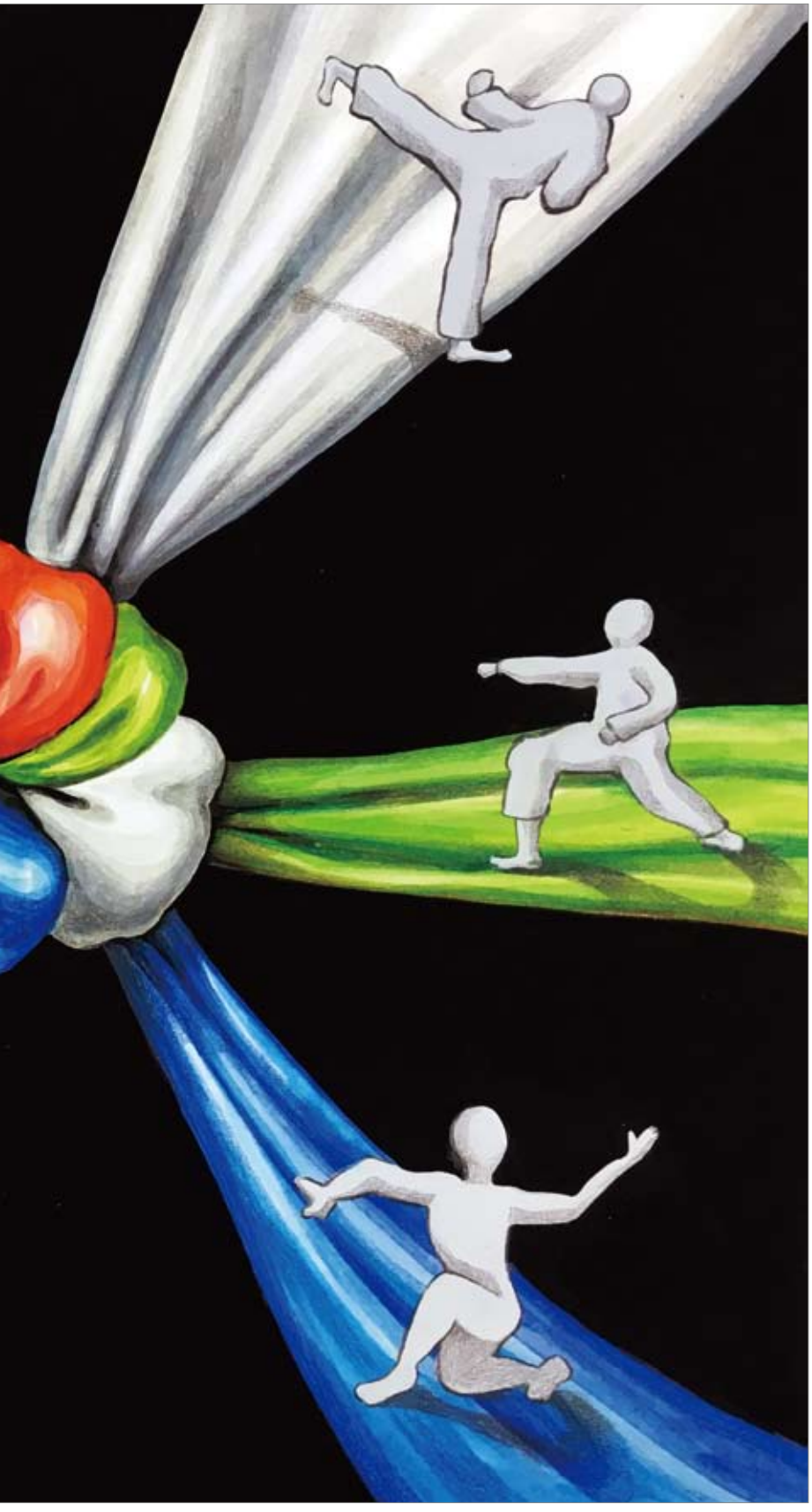
기장 입구 근처 혹은 행사 부스 주변

경험하기 전, 호기심이 생길 때나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읽게 하고자 하였다.



전광판을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써
대회의 홍보 효과 뿐만 아니라 관람객에게
양한 이벤트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에도 있다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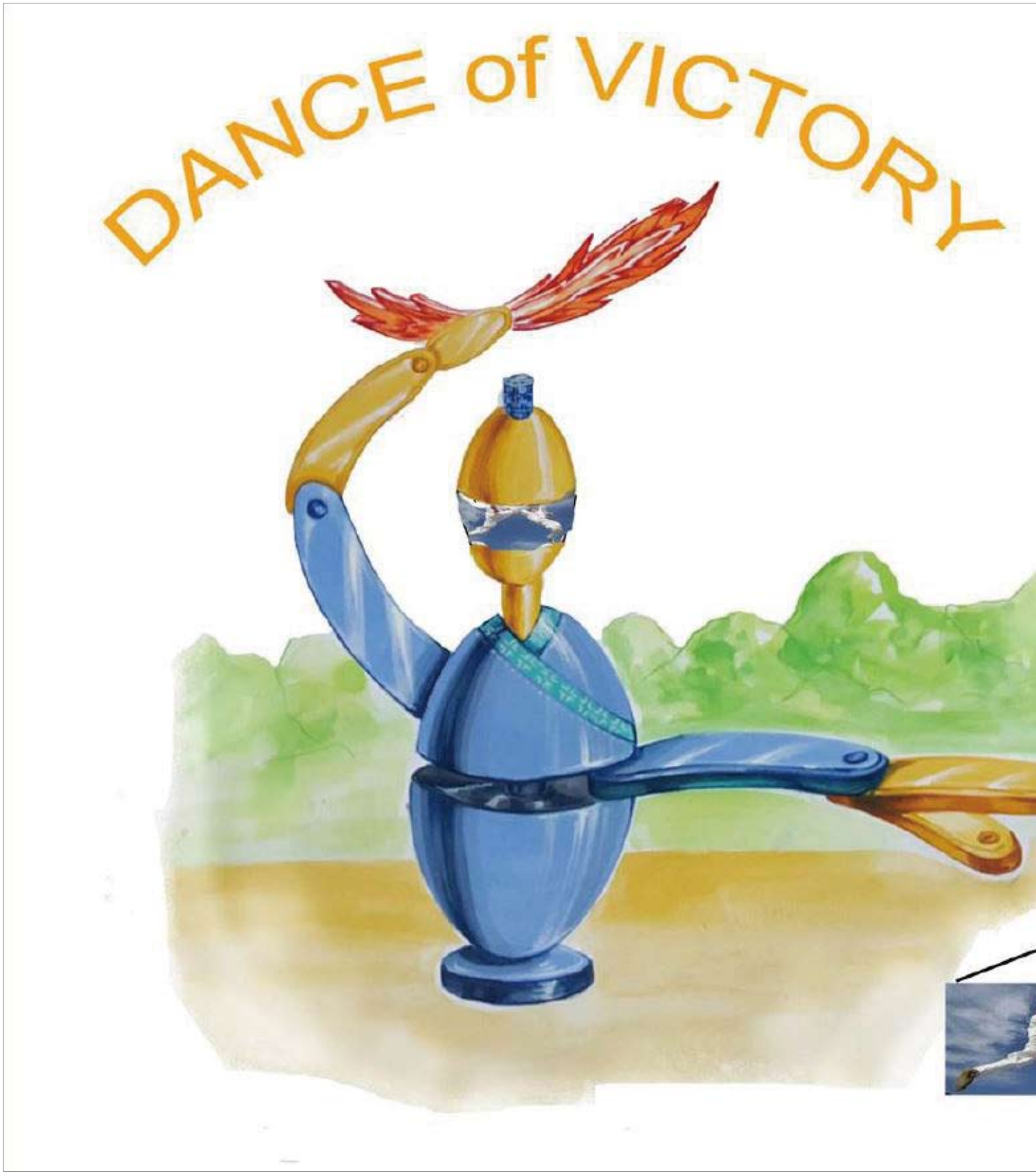
무예로 세계를 잇다!

김우림 _ 덕원예술고등학교

DESIGN CONCEPT

무예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무예를 전통 속에만 머물러있는 스포츠로 생각하는 것 대신 무예를 통해 세계가 하나 됨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색의 비단 천들이 겹쳐지며 하나로 단단하게 묶이는 이미지로 각자 다른 세계인들이 하나 됨을 표현했다. 또한 무예의 대표적인 자세들을 나타내는 픽토그램의 이미지들이 올라가있는 천들이 여러 방향에서 나와 한곳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미지를 통해 충북이 세계 무예의 중심지라는 것을 표현했다.


DANCE of VICTORY

장려상



Dance of VICTORY

이현지 _ 충북예술고등학교

DESIGN CONCEPT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의 매력을 모두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벤치를 디자인 했습니다. 큰 틀은 사람이 무예(칼춤)를 하며 승리를 기원하는 모습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했습니다.

1. 평상시엔 전광판과 불모양 조명으로 홍보의 역할을 하다가 허리 축에 숨겨져 있던 팔을 꺼내면 3~4인 정도의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벤치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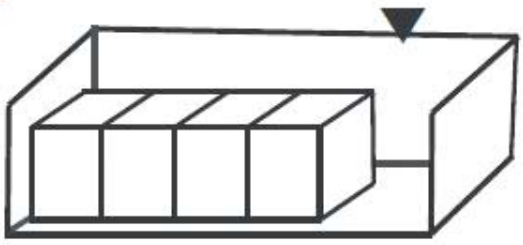
2. 공공장소에 배치된 이 벤치는 누구나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에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얼굴부분에서 전광판으로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에 대한 홍보 영상이 재생 됩니다.

3. 칼을 연상하는 불 모양 조명이 달려서 밤에도 벤치에 앉아 편히 쉴 수 있습니다.

4. 접이용 의자로 공간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MOVE! Eco Ty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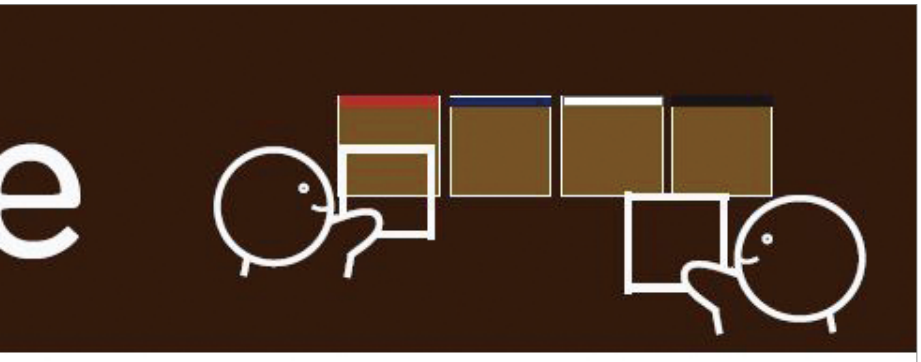
- CONCEPT

세계인들이 함께하
이미지와 슬로건문
개최지인 충청북도
면체 의자로 세계
음양의 조화를 담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재료인 코
때부터 사라질때까

- forehead

세 계
시 대 를

장려상



는 축제인 세계무예마스터쉽의 이모티콘
구를 담아낸 체험의자입니다.
청주의 문화유산인 금속 활자모양의 정육
가 무예로 하나되는 국제대회인 만큼 동.서양
아낸 붉은색, 푸른색, 검정색, 흰색으로 구성

르크와 천연안료를 사용해 의자가 만들어질
지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의자입니다.



MOVE! ECO TYPE

김은희 _ 충북예술고등학교

DESIGN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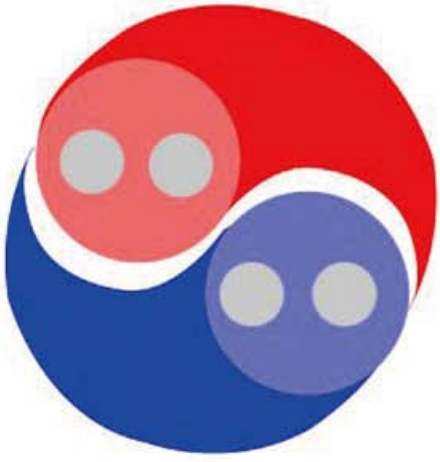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축제인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의 슬로건 문구를 담아낸 친환경 체험의자입니다.

개최지인 충청북도 청주의 문화유산인 금속활자모양의 정육면체 의자를 사람들이 직접 배열함으로써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을 보러 온 관람객들에게는 한국의 한글과 충청북도의 직지를 알리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를 알릴 수 있는 의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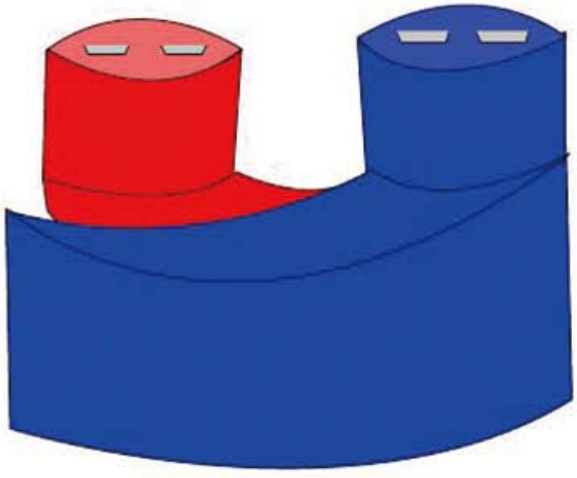
의자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벤치의 모양으로 생긴 케이스에 의자를 넣어 보관하여 몸이 불편하신 노약자 분들에게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벤치를, 사용하지 않는 의자를 빼어낸 곳에는 휠체어를 넣을 수 있어 휠체어를 타신 분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조립식 벤치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T-chair

〈위〉



〈옆〉





<소통> <화합> <평화>

〈컨셉〉

태극의 T와 무예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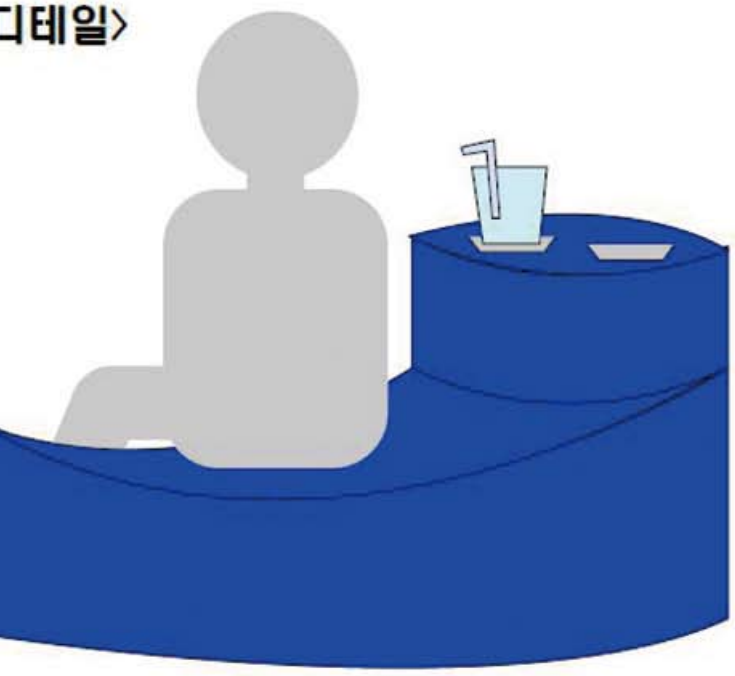
어렵게 생각되는 애

들에게 쉽게 친해질

했다. 2019 무예 마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장려상



스터십을 위한 트레이닝의 T를 조합한 T-chair는
국심을 일깨워준다. 또 한국 문화가 어색한 외국인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의자로 디자인
스터십에서 추구하는 소통, 화합, 평화 이 세 가지가
있는 T-chair를 통해 세계가 하나가 되면 좋겠다.

T-chair

이연지 _ 한림디자인고등학교

DESIGN CONCEPT

T-chair는 음과 양이 한 세트인 태극을 이용하여 갈라질 수 없는 남북을 의미하기도 하며, 소통이 단절되고 있는 요즘 시대에 소통을 추구하는 의자이기도 하다. T-chair는 블록 같은 느낌도 주어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컵 거치대도 있어서 걱정없이 음료를 두고 소통할 수 있다.

태극의 T와 무예마스터십을 위한 트레이닝의 T를 조합한 T-chair는 어렵게 생각되는 애국심을 일깨워준다. 또 한국 문화가 어색한 외국인들에게 쉽게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의자로 디자인 했다.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에서 추구하는 소통, 화합, 평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T-chair를 통해 세계가 하나가 되면 좋겠다.

power <무예에서 느



무예 하면 떠오르
벤치이다. 일상에
는 벤치에 앉아 휴
걸음을 디딘다. 거
하여 어느 장소에

▼ side



장려상



파워(벤치)

김서진 _ 충북예술고등학교

DESIGN CONCEPT

무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는 주먹이 있다. 주먹을 보면 에너지 넘치는 파워를 느낄 수 있다. 파워 벤치는 이러한 주먹을 컨셉으로 하는 벤치이다. 당연히 이 벤치의 가장 큰 특징은 눈에 확 들어오는 주먹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에 지친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힘이 느껴지는 벤치에 앉아 활력을 얻을 수 있다.

파워 벤치는 천연 소재인 편백나무를 소재로 하여 자연과 잘 어우러지도록 디자인 되었다. 나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두어도 잘 어울리고 체육관 앞이나 공원 등 어느 곳에나 설치할 수 있다.

작품의 사이즈는 2~3명이 앉을 수 있을 정도의 넓이와 3m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

입선

빈치(Binch)

조은비, 김민교 _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DESIGN CONCEPT

저희는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를 주제로 한 공공시설물을 디자인 하였습니다.

대회나 축제같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엔 앉을 자리도 부족할뿐더러,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 행사 후 뒷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벤치에 앉은 후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 버젓이 두고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간의 활용을 높이고, 벤치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례를 없애보자 하여 벤치와 쓰레기통을 합친 bin(버리다) + bench(벤치) = binch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입선

이색의 쉼터 좌고벤치

이지수 _ 한림디자인고등학교

DESIGN CONCEPT

저는 '우리 모두가 편할 수 있으면서도 이색적인 공공시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무술가들이 한 곳에 모이는 만큼 어떻게 디자인 하면 '이 곳을 무예의 중심지로 기억남을 수 있을까' 고민만 하다 우연찮게 '좌고(坐鼓)'라는 전통 악기를 발견했습니다. 연주의 매 마디마다 시작을 알려주는 이 악기는 곡의 기둥을 세워 주는 역할로, 연주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좌고를 알게 된 후,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줄 '벤치'와 곡(세계무예)의 중심인 '좌고'(충청북도)를 조합해 보는 게 어떨까?' 장난스런 생각을 하다가 '등받이를 좌고로 해서 사람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붙여주자!' 해서 지금의 좌고벤치가 그려졌습니다. 네 사람 정도가 앉을 수 있게 폭의 길이는 넉넉히 90~120cm 정도라는 가정 하에 구상했습니다. 북 부분에는 통모양의 플라스틱(혹은 나무)에 고무재질로 해서 소리 나면서도 비가와도 썩지 않게, 의자의 기둥이나 앉는 부분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벤치 재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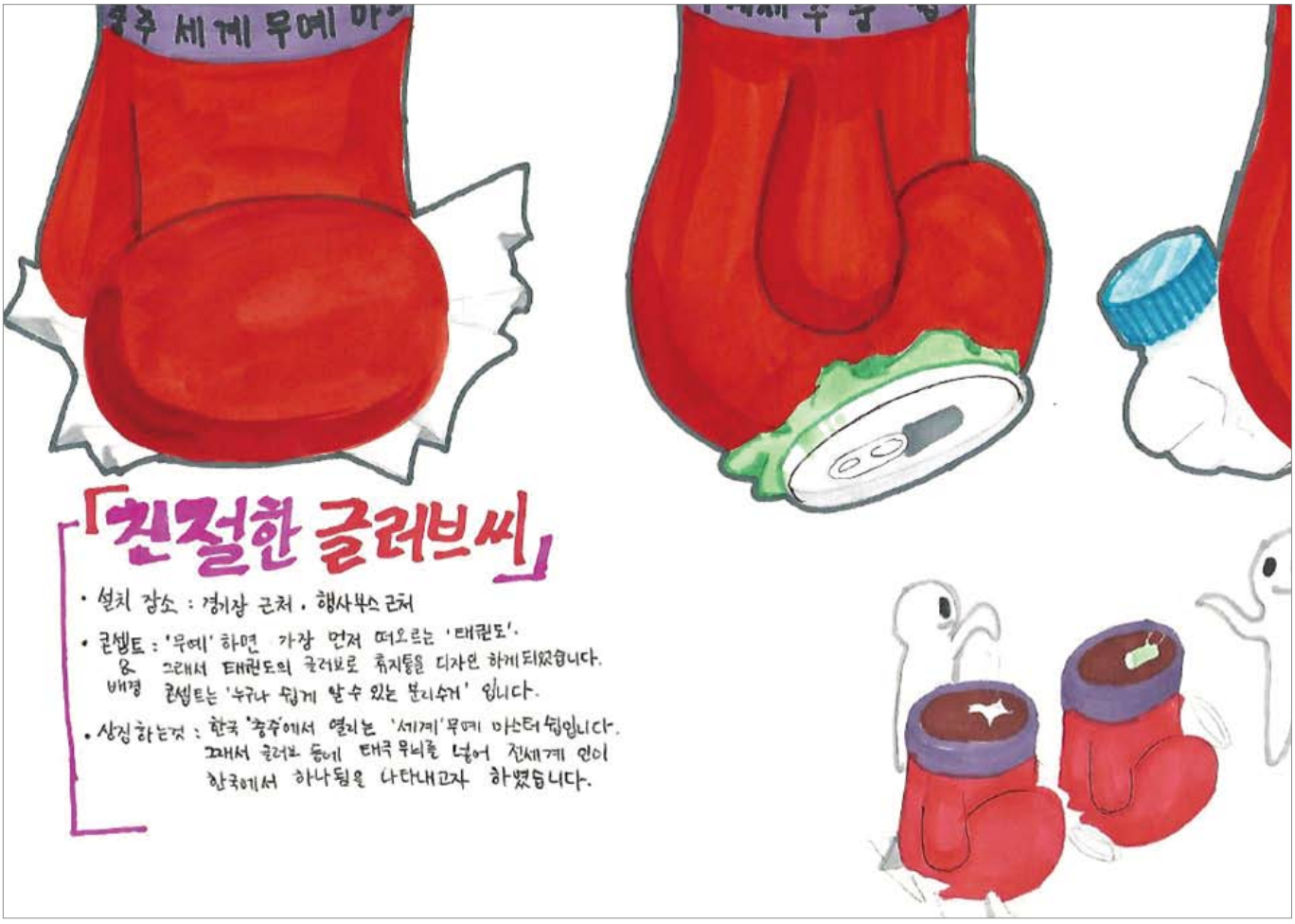
입선

친절한 글러브씨

하수민 _ 충북예술고등학교

DESIGN CONCEPT

'무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태권도' 였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의 글러브로 휴지통을 디자인 하게 되었습니다.
글러브는 원래 상대방을 때리는 용도입니다.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상대방 대신 버려져야 하는 쓰레기를 바닥에 깔고 있는 용도로 바꾸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도 보자마자 어디에 버려야 할지 알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글러브 등 뒤에 있는 태극무늬는 단지 한국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이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를 통해 하나 되어 어우러진 모습을 상징합니다.



| 제7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

입선

중심에서 자라나다

이유민 _ 충북 예술고등학교

DESIGN CONCEPT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의 상징 조형물이자 화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충북, 충주, 이 중심에서 자라나는 무예의 나무, 생명이라는 뜻을 담고자 했습니다. 손동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예!' 라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손동작이며, 또 하나는 '이 곳'을 나타내는, 손으로 지점을 찍어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화분은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지구로 표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등에는 대한민국의 한반도와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표현했습니다. 무예의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날 것입니다. 화분은 실외에도, 실내에도 놓아질 수 있습니다. 화분의 크기는 가로 1.4m, 세로 1.75m이며,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밑부분의 손가락이 무게를 버텨야 하기 때문에 아래쪽을 무겁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무 말고도 꽃이나 다육식물 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느티나무나 소나무 같은 큰 품종의 나무는 키울 수가 없어서, 황금측백 나무나 동백나무등 작은 품종의 나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라나는 무예의 나무를 관람하며 함께 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7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작품집

발 행 처 충청북도
발 행 인 충청북도지사
발행부서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
285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발행일자 2018년 12월

- 본 작품집에 수록된 작품 및 내용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며, 본 출판물의 권리는 충청북도에 있습니다.
- 문의 :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Tel. 043-220-4451~5 Fax. 043-220-4459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285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Tel. 043-220-4451~5　Fax. 043-220-4459